

[2022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 발표

‘2022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개굴개굴 고래고래	극단 즐거찾기	구선진
계단의 아이	극단 신비한 움직임사전	윤희균
해피해프닝	공간 서커스살롱	서상현
끼리?	창작집단 인사리	한지혜
상상력극장 삼양동화	해의 아이들	유정민
어딘가, 반짝	이지민	이지민
오늘도 바람	올리브와 편콩	이영숙
줄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	광대생각	선영옥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뉴엘런지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거인의 정원	작은극장	김보경
살롱 탐정소	(주)스튜디오 햇	노성신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예술감독 초이스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우주, 아이, 삶,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밤넝쿨
환영해	타루	정종임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총평

2022년 아시테지 서울 겨울축제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새로운 작업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많은 작품들이 이번 공모에 신청하여 주었습니다. 아시테지 회원단체, 비회원단체 구분 없이 이에도 많은 예술단체들이 신청을 해주었고, 연극, 무용, 서커스, 음악 등 여러 장르 예술가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에는 35개 작품이 신청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신청 작품 수는 적었지만 신작작품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그 작품의 완성도도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심사위원들이 공식 참가작품을 선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매년 강조해서 말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세운 몇 가지 기준들은 작품의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참가 신청서를 읽어보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어린 신청서의 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지원금 파동이 있어서 바로 며칠 전까지도 공식참가작 수를 작년만큼 선정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에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축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올해도 총 10개의 공식참가작과 2개의 뉴엘런지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공식참가작 중 2개 작품은 올해부터 예술감독 초이스로 포함시켰습니다.

예술감독 초이스를 통해 매해 특별한 주제나 형식의 작품에 포커스를 맞추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술감독 초이스는 영유아 공연입니다. 12개월 전후의 아가들이 대상인 공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영유아 공연들이 계속 시도되어 오고 있었고,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를 통해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영유아 공연은 기존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는 조금 다른 고민과 실험들이 필요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행히 두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8 개의 공식참가작품과 2개의 뉴엘런지 부분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작품과 선정 작품들을 분류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성격 혹은 장르	신청 작품 수	선정 작품 수
연극(희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극 양식)	9	2
오브제, 인형극(순수, 복합인형극, 오브제극)	8	4
년버벌 연극, 광대극 등	1	1
마임, 서커스, 년버벌 퍼포먼스	1	1
음악(국악, 클래식 등 순수 음악 공연)	1	-
뮤지컬, 음악극(노래가 중심이 되는 공연)	10	1
전통연희(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극적 공연)	4	1
무용(순수 춤 공연, 댄스씨어터)	-	-
청소년(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2	-
영유아 공연(0~3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1	2

물론 이 분류로도 나누기 어려운 좀 더 복합적인 요소들의 작품들도 있지만, 대략 작품들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해보았습니다. 뮤지컬, 대본중심의 연극, 인형극 등이 눈의 띵니다. 이중에서 아시테지 협회 회원단체가 24개 작품, 비회원단체가 11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올해 완성도 높은 청소년 공연들이 세 작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작품은 이미 2년 전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청소년극을 겨울축제에 포함시키기에 아직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제>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겨울축제는 오히려 영유아들을 위한 공연과 어린이 공연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극을 만들고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작업하시는 현장의 예술가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청된 작품들을 보고,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 역시 창작자로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나? 좋은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관객이 즐거워하고 좋다고 평가하면 다 좋은 것인가? 평론가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건가?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해야 하나? 아름다운 공연이면 좋은 것인가? 누구는 정말 좋다고 하고 누구는 영 아니라고 할 때 그런 공연은 안 좋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나를 최선을 다해서 이런저런 기준과 평가들을 고려해가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럴듯한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 절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기는 하나봅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며, 질문하고 의심하기를 쉬지 않으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 어린아이였고, 내 옆에 또 한 어린아이가 함께 살고 있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믿음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의 눈은 누렇게 버가 익어갑니다. 밤은 툭툭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집니다. 올해 다행히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름 내내 폭염이 계속되는 날들이었지만, 다행히 자연은 잘 견뎌주었습니다. 지난해 54일 장마에 이어, 울여름 폭염까지. 내년엔 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요.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징후 말입니다.

인간이 기후온난화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지난 8월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이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우리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물어야 할 상대를 명확히 주시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예술가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만나고 항상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고민해야 하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 9월 27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한가위 보름달 아래
화천 예술텃밭에서
배요섭